

지역 소식통

김제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 및 이전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 시립도서관은 내진보강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임시휴관함에 따라 임시적으로 사무실과 자료실, 열람실을 이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은 휴관 기간 중 도서관 이용객의 자료대출을 도모하고 수험생들의 학습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실과 자료실을 김제시체육관 건물(도작로 224-98) 내로, 열람(학습)실은 지평선학당 별관 3층 다목적실(도작로 74)로 이전에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자료실은 월~금(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열람(학습)실은 월~금(평일) 오전 9시~오후 9시30분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4년 품목별 전문교육 7월과정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품목별 전문교육 7월 교육과정을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품목별 전문교육은 농업인들에게 품목별 핵심재배기술을 교육해 당면 영농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보급, 안정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주요농작물(벼, 고추, 콩, 참깨) 후기 안정 생산재배기술, 블루베리 수확 후 관리, 논콩 복주기 및 순지르기 등의 내용으로 총 4회에 걸쳐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4개 작목 24회에 걸쳐 1,612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7월부터 11월까지 8개 작목 8회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에 관심있는 농업인은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540-45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담이 농촌지원과장은 "농업인의 교육수요에 맞춘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증가되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 펼칠 것”

유희태 완주군수, 역점사업 탄력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개정안, 완주군의회 본회의 통과

정성주 김제시장, 민선 8기 2주년 맞아... 성과·향후 비전 밝혀

정성주 김제시장이 “민선 8기의 정책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한 발 더 뛰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며 민선 8기 향후 2년의 각오를 밝혔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7일 오전 2층 상황실에서 민선8기 2주년 성과와 향후 2년의 비전 기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그간 소신껏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화없이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이 바라는 변화와 시민이 원하는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늘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지난 2년간의 소회를 전했다.

정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 대표 성과로 2년(2023~24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확보를 첫 번째로 꼽았다.

정부 재정 기조 변화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며 오는 2025년 국가예산도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심의를 총력 대응해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확보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포부를 내비쳤다.

이어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제2 특장차 전문단지과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를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아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또, 시 최초, 대기업(쑤두산 유치 등 총 23개 기업 6,883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188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출산장려금,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8개 분야 115개의 김제형 맞춤형 생애주기별 인구정책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주택 건설 등과 같은 주거 여건 개선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저출생, 고령화라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치(0.72)의 2배인 1.37명을 기록해 도내 1위, 전국 4위라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12억원 규모의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타운하우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명품디자인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김제시 인구 유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선 8기에는 새롭게 선보인 축제로 시민들에게 신선한 경험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2023년 처음 개최한 꽃빛드림 축제는 기존의 관주도의 축제에서 탈피해 청년농과 지역 상권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축제로, 바가지요금과 술 없는 건전한 축제로 이미지를 굳혔으며 김제 새로 보미 축제는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김제 모악산 축제는 자연 속에서 음악과 시민이 어우러진 모악산 뮤직페스티벌로 새롭게 변화해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난 6월에는 1,300년 된 고찰인 진봉산 망해사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다. 명승 지정은 앞두고 망해사 일원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명승 지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명승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시는 향후, 망해사 일원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 권역 관광유적지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계획을 하고 있다.

민선 8기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밀착 복지행정을 펼쳤다. 민선 8기 정성주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 만족도가 99.5%로 나타났으며, 아이들이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적절한 치료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달빛어린이병원은 월 평균 이용 건수가 450여 건에 이른다. 그런가 하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끼니



김제시는 27일 오전 2층 상황실에서 민선8기 2주년 성과와 향후 2년의 비전 기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천사무료급식소를 유치하여 일일 평균 350명분에 달하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선 8기 김제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른바 ‘난제 사업’ 해결에 집중해 왔다. 난제 해결 1호라고 할 수 있는 구 동진강 휴게소는 지난 12년간 방치되어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는데 국도비 30억원을 확보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6월 5일 지평선 새마투리는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김제은천은 민간사업자 협약과 기반시설 예산 확보로 올해 말 재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난제사업들을 패도난마의 각으로 직접 챙기고 풀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같이 시정 전반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23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수상(고용노동부)을 비롯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 평가 대상(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등급(국민권익위원회) 등 총 70여 개 부문에서 중앙부처와 외부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김제시의 행정역량과 행정서비스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인정받았다.

정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김제 발전의 뿌리를 거대하게 성장시키는 에너지이자 자랑”이라며 “민선 8기의 정책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한 발 더 뛰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며 민선 8기 향후 2년의 각오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완주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선 8기 축산약취 개선을 위한 유희태 군수의 역점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의회는 최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의 축산 냄새, 사육량 증가 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담긴 ‘축산약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축산시설에 대해 이전, 폐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군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주거지역내 악취 저감을 위한 노후 축사에 대해서는 이전, 폐업 지원 등을 통해 피로를 덜어주고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트랙으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 전략도 마련된다.

먼저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저능력 암소에 대한 도매 지원 사업이 도내 유일하게 추진된다. 양돈은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또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축산 냄새 저감 능력이 취약한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노후 소규모 한우 축사를 철거 및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첫 시행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 값 하락, 사육량 증가, 축산 냄새 갈등 등 축산업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완주군의 축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대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B그룹 대상(1위)으로 선정돼 사업비 2,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평가는 세수 규모에 따라 A그룹(1,500억원 이상), B그룹(600억원 이상), C그룹(600억원 미만)으로 나뉘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세 징수율,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목표 달성도 등 8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다. 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 집중·책임 징수 운영으로 작년 동일 기간 대비 시세 징수율을 20.0%에서 30.3%로 10.3% 끌어올리고, 체납 차량 반회관 영치 활동을 확대해 체납 차량 262대(체납액 4억4,400만원)를 영치하고 그중 212대를 반환해 총 1억5,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노력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지방세 징수실적 최고기관 선정

완주군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대상에 수상했다. 완주군은 징수실적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7일 완주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액 체납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도 적극적인 징수 정책을 펼쳐 전북 자치도에서 주관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비 3,300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군은 날로 늘어가는 고질·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압류·공매 및 체납차량 반회관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실적을 높여왔다.

또한, 2023년 국제 결산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통한 자부담을 확충해왔다. 또한, 지방세·세외수입을 전년 대비 106억 추가 징수해 완주군 세입 1조 원 시대를 달성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